

한국의 多元主義 : 그 社會生物學的 觀察

宋 復
(延世大學校)

〈目 次〉

I. 社會生物學的 요소

II. 그 요소들의 특징

I. 社會生物學的 요소

多元主義사회로 移行해간 여러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 중 그 어떤 특징이 가장 결정적 차이를 지닌 특징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간략히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가 社會構造的인 것(social structure)이라면, 다른 하나는 社會生物學的인 것(socio-biolog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社會構造的인 것은 그 사회 특유의 역사적 특징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는 역시 社會生物學的인 것에도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놓고 본다면, 社會構造的인 것의 가장 큰 특징——多元主義사회와 연관해서——은 分化和 統合의 수준 및 그 樣態가 될 것이다. 즉 그 사회의 생산활동에서 어떤 산업이 中心이 되어 있느냐, 동시에 인구의 다수를 어떤 산업이 점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分化를 主傾向으로 하느냐 統合을 主傾向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分化를 主傾向으로 할 경우 分權化 즉 하위부문들

의 自律性은 얼마만큼 높게 이루고 있으나, 그러면서 統合의 요구——조정과 질서——도 얼마만큼 充足되고 있으나 하는 것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統合을 主傾向으로 할 경우, 集權化 즉 하위부문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그러면서 하위부문들의 자발적 행위를 강화하는 동기유발을 얼마만큼 촉발시키고 있으나 하는 것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社會構造的인 것은 사실상 산업화를 경험하는 나라들의 경우, 예외 없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되어 있다. 시장적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나라들은 작동하는 나라들대로 공통적인 경험을 치르고 있고, 반대로 시장적 메카니즘이 작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않는 나라들대로 또한 같은 공통적인 경험을 겪어 가고 있다.¹⁾ 물론 나라에 따라서 分化해가는 부문과 分化해가는 속도는 다르다 해도, 또 統合의 차원과 정도 및 統合해가는 방식은 다르다 해도, 分化든 統合이든 그 어느 하나를 主傾向으로 해서 해당 사회가 발전하고 유지해가는 것만은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多元化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앞서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 및 앞서 多元主義사회를 이룩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보다 많이 치르게 될 것인가, 혹은 그들 나라에 비해 어떤 요소가 보다 장애적인 요소일 것인가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한국사회 구조 자체가 앞서 산업화와 多元化를 경험한 나라들과 꼭 마찬가지로 分化를 主傾向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구조의 짜임새도 완전히 分化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개편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 나라와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공통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풀이해서, 한국사회가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화과정에서 統合을 主傾向으로

1) 이의 전형적 예는 자본주의사회의 산업화 과정과 공산주의사회의 산업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면, 분명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들 나라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같은 統合化경향과 統合化요소는 명백히 구조적으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하면,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多元主義사회로 이행해가는데는 적어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선 이를 앞서 경험한 나라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따라서 문제될 것도 없다. 만일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分化 수준의 차이일 뿐이고——그리고 이 차이는 分化속도에 의해 얼마든지 배워질 수 있는 차이이며——가장 문제시될 수 있는 發展方向에 있어서도 이들 나라와 완벽히 합치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多元主義사회로 가는 途程에서 이들 나라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굉장히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社會生物學的 요소에서 찾아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多元主義사회에서 내포되는 기본특성과 한국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과의 모순은 적어도 社會構造的 측면에선 그 發展方向이 같이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고 또 실제로 해결해 가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서구 多元主義사회와 판이한 우리의 傳統的 여러 행위유형이라든지, 오래동안 지배되고 內面化돼온 유교적인 여러 가치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여러 가치들이 多元化과정의 주요 장애적 요소로 지적되어 왔고 아직도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5년간의 산업화과정에서 사회적 分化에 발맞추어 괄목할만큼 변화됐고, 특히 80년대를 넘어서면서 현격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²⁾ 그런데 거의 변화됨

2) 이는 여러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져 온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車載浩, “價値觀의 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編, 「韓國社會의 變化와 問題」(서울: 法文社, 1986), pp. 397~429. 李勳求, 「韓國 1971~1980 : 그 價値觀의 變化」(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0). 한국개발조사연구소편,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세계 6개국 아동과 어머니의 의식구조 비교조사」(1980).

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社會分化가 어떻게 진행되건 그에 관계 없이 변화의 조짐이 좀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상불 社會生物學的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 社會生物學的 요소는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혹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중의 하나로 인정되어, 그 어떤 사회적 변화의 적응과 촉진에도 기여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특유의 특정 社會生物學的 요소가 강점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해적요소로서 작용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多元化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多元化를 경험한 나라들 보다 부담을 하나 더 크게 안고 多元化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된다. 보다 풀이해서, 이미 多元化를 경험한 나라들은 애초 分化를 主傾向으로 해서 사회적 分化만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적으로 多元主義사회로 이행해 간데 반해 한국사회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社會分化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生物學的 측면에서의 장애 요소도 함께 제거해야 하는——2重苦 2重努力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多元化와 깊이 연관된, 혹은 多元化과정에 직간접으로 크게 작용하는 社會生物學的 요소는 어떤 것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 나라의 人口構成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人口가 단순히 어떤 색깔 어떤 人種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언어와 관습 혈통이 전혀 다른 多數人種(multi-race)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같은 單一人種(uni-race)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한 사회에 있어 多數人種的 구성의 경험과 單一人種的 구성의 경험은 그들간 혹은 그들내 사회관계의 형성과 상호작용의 수립에 있어 아주 결정적 차이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적 分化와 더불어 多元主義사회를 이룩한 나라들의 인종구성적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 나라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多數人種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多數人種 특유의 사회관계 및 상호작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³⁾ 동시에 그러한 사회관계 및 상호작용과 多元主義사회는 최소한 單一人種구성의 사회보다는 훨씬 높은 親和性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려 볼 수 있다.

물론 多數人種을 구성하고, 동시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多元主義사회적 성격을 띠지 않는 사회도 많이 있다.⁴⁾ 이는 앞서 지적한, 시장 메카니즘을 지향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가 된다. 이런 나라들까지 모두 포괄해서 人種구성과 多元主義사회적 관계를 다시 요약해 보면, 多元主義사회를 먼저 이룩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多數人種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해, 역으로 多數人種의 구성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多元主義사회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多數人種의 구성이 多元主義사회와 연결되려면——혹은 多數人種사회가 동시에 多元主義사회가 되려면——거기에는 사회 分化라는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구구성에 있어 언어와 관습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혈통이 아주 다른 多數人種의 구성이라는 社會生物學的 요소는 산업화에 의한 사회 分化만큼이나 혹은 그와 거의 대등하게 多元主義사회성립 혹은 촉진의 주요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또한 多數人種의 구성이라는 社會生物學的 요소의 기여는 자동적으로 多元主義사회 성립

3) 예전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네덜란드, 벨지움, 스웨덴, 뉴웨이,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방 14개국을 보면 적은 것은 최소 5개에서 많은 것은 수 10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을 내포한 多數人種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4) 대표적인 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 東歐 7개국.

과 축진의 주요 요건 하나를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는 다른 말로 單一人種的 구성이라는 社會生物學的 요소와 多元主義사회는 서로간 親和性이 아주 낮은, 경우에 따라선 서로에 대해 저해적 요소로서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곧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떤 社會발전이든 혹은 그 어떤 사회적 변화든 그것을 추진하고 적용하는 가장 큰 강점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社會生物學的 요소——單一人種 單一民族——가 多元化과정에선 오히려 결정적 단점으로, 最善의 경우에도 최소한 기여적 요소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이 된다.⁵⁾

II. 그 요소들의 특징

그러면 이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의 사회관계 및 상호작용의 기본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은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의 그것과 어떤 차이를 가지며, 그리고 그것은 多元主義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기본특징 혹은 그 多元主義사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들과 어떤 모순을 야기하고 있는가.

이는 다음 7개로 나누어 그 차이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차이들의 비교에 앞서 미리 闡明해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차이들은 그 같은 人種的 구성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삶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와 심성과 태도와 행동으로 정착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리고 內面化되는데서

5) 이는 20년전 G. Henderson의 한국사회에 대한 야심적인 저서에서도 간단히 지적된 바 있는데, 그는 한국사회의 기본적 특징으로 사회적 동질성을 들고, 이를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인종적 동질성과 연관해 보고 있다.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9), pp. 18~21.

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生物學的의 차이는 사회구조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적 諸價値들이 바뀐다 해도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에 마치 앙금처럼 남아서⁶⁾ 사람들의 社會的 行爲(social action)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어느 사회에서든 社會生物學的의 요소는 구조나 제도나 가치에 훨씬 先行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뀌려면 역시 社會生物學的의 諸要素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變異가 시간상으로 미리 혹은 동시에 수반될 때 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라 속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 위에서 人種的 구성과 연계된 諸社會關係 및 상호작용과 여러 가지들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多元化사회가 갖는 다음 7가지 특성들을 기준으로⁷⁾ 서로 비교해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더해 볼 수 있다.

1) 相異 : 남과 “다르다”는데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差異난다”는데 대해서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와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異質的인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만큼, 혹은 생활관습, 언어풍속, 행위유형들이 전혀 다른 여러 인종들과 늘상 접촉해 사는 그만큼 “다름”(difference)에 대해서 혹은 남과 “차이남”에 대해서 습관화(used to)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습관화는 몇 10년 정도가 아니라 몇백년을 이질적인 여러 인종들과 접촉해 오는 가운데서 체질화되고 內面化되어서 마침내 “다름”에 대해서 혹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되었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적응된 상태를 心性的 차원에서 “차이에 대한 寬容”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 V. Pareto가 말하는 residue殘基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다.

7) 이 7개는 多元主義社會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만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철저히 “같음”(sameness)을 기초로 해 있다. 얼굴모습 피부색같이 같은 것만큼 생활, 사고, 행동방식 등이 모두 같고 사회적 요구 사회적 가치도 모두 같다. 따라서 “같음”에 오직 적응해 있고 습관화돼 있고, 그리고 그 적응 그 습관화가 수백년을 이어오는 가운데 “다름”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두려움 그 거부감 역시 체질화되고 內面化되어서 자기와 같지 않는 것, 더구나 자기와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선 괴리감, 이질감, 갈등감, 심지어는 모멸감을 갖고, 더 나아가선 적대감까지 갖는다. 따라서 “차이 나는 것”, 자기 의견과 “다른 것”에 대해 寬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 寬容에 대해서 義理없는 것, 志操를 버린 것, 野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日常化되었다.

2) 移動: 이는 地理的으로 얼마나 멀리 얼마나 자주 옮겨 다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空間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애착을 갖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근래에 와서는 직업적 이동도 포함시키고 있다.

경험적으로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보다 지리적 이동은 물론이고 직업적 이동도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⁸⁾ 그 이유는 지리적 이동이 용이한 지역적 공간에 이들 인종이 주거하고 있고 또 미상불 주거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거론한 “다름”에 대한 적응력, 수용력(비거부감) 때문에 어디든 살기 좋은 곳이면 이동할 수 있다는 사고 형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동 및 직업적 이동은 지역적 有機性, 균형성 및 직업적 有機性과 平等性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서 어떤 지역도 센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직업도 賤

8) Robin M. Williams, Jr., *American Societ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70, 3rd ed.), pp.12~19. 미국을 a land of minorities로 보고 그것이 갖는 주요 특징들을 racial heterogeneity 면에서 주로 보고 있다.

視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경향성을 촉진시키고 정립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역시 그 “다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⁹⁾ 지리적 이동이 낮고 직업적 이동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 따라서 한번 머문 자리는 代를 이어 머물게 되고, 한번 시작한 생활의 터전(業)은 代를 이어 계속하는 터전이 되며, 한번 같이 한 이웃은 代를 이어 같이 사는 이웃이 된다. 그리하여 내고장과 다른 고장을 구분하는 의식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고, 자기가 사는 고장은 현재 나 뿐 아니라 자기 先代의 고장이며 後代 역시 머무르게 될 고장으로 인식해서 선산(先山) 선릉(先壟) 선묘(先墓) 선영(先塋), 심지어 대대로 묻혀 사는 영이라는 의미의 세장지(世葬之地)라는 “뿌리”의식이 그 어디서나 확고해진다.

이야말로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쉽사리 찾아 보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공간의식과 시간의식, 생존의식이 교묘히 합치된 故鄉이라는 가장 非移動의이고 移動거부적이며 배타적인 의식과 행위를 생성해내는 가장 시원적인 社會生物學的 근거가 된다.¹⁰⁾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와 같이 移動이 극심한 사회에서도 故鄉을 생각하고 故鄉을 찾고 끝내는 故鄉으로 歸鄉하려는 歸巢本능이 여전히 지배적이 되는 것도, 그리고 20세기 들어서기까지만해도 소수민족이 거의 없었던 日本과 他人種이 거의 살지 않는 황하 양자강 中心部の 漢民族과 철저히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한국사회에서 유달리 故鄉을 그리워하고 他

9) 물론 “다름”에 대한 거부감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社會生物學的인 측면에서 이 요인이 가장 先行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0) 서구에도 고향(hometown) 혹은 失鄉者(homeless, Heimatloser)라는 것이 있지만, 이는 대개 조상과 후손의 의미 즉 시간개념이 없는, 단순히 어렸을 때 자기가 자란 곳이라는 공간개념만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他鄉살이”라는 恨이 담긴 용어를 쓰는 것도 특이하지만, 도시를 떠나 자기 고장 아닌 다른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落鄉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故鄉意識을 특이하게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鄉살이를 한탄하는 노래와 詩가 또한 유달리 많은 이유도 모두 이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密度 : 거주지 밀도의 높고 낮음이 多元主義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확실히 밀도 짙게 산다는 것과 밀도 얇게 산다는 것은 社會生物學的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多數人種들이 함께 모여 살면 모여 사는 그만큼 “다른” 것에 대해 익숙해지고 “차이”에 대해 관대해진다 해도, 적어도 生活의 場에서만은 “다른” 그만큼 애초부터 거리를 두고 밀도 얇게 사는 方式을 擇했을 것이고, 따라서 他者의 간섭, 타자의 介入, 그리고 타자와의 불필요한 상호작용도 그만큼 적었을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다. 이는 곧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가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훨씬 단순화되었을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같은 사회관계의 단순화는 또한 사물의 통찰력에 있어 혹은 일의 처리에 있어 보다 분석적이고 보다 냉정한 차원을 고수하고 강구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우선 生活의 場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갈아 있는 그만큼 그들간 특정 거리를 두고 밀도 얇게 살아 무런 生態學的 근거(거부감)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협동이나 생산성 증대를 위해 특정 공간에 밀도 짙게 함께 주거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生活의 場에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간섭과 개입, 감시와 통제가 언젠가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또한 인간관계 역시도 복잡적이고 복잡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어떤 일의 처리도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선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한 관찰 역시도 分析的이거나 段階的이기 보다는 直觀的이고 綜合的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같은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상정할 수 있듯, 情으로 얽히고 섹히는 情的인 인간관계가 중심이 돼서 冷情한 것 非情한 것 沒人情한 것 그리고 無情한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혐오한다. 따라서 인간관계 역시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고, 이성적이기 보다는 인격적이며, 합리적이기 보다는 특수私情의이고, 主知的이기 보다는 主情的이며, 公私구별보다는 公私一致인 것으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情的인 것과 관련하여 인간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마음과 가슴에 맺히는 바가 생겨나서 “恨”이 차고 “恨”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한다.¹¹⁾

4) 部分 : 部分을 중시하느냐 部分을 경시하느냐 역시 社會生物學的의 요소와 연관된다. 다른 말로 全體는 部分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全體는 그 部分들을 초월해 있느냐의 사고 역시도 이와 같은 것이 된다.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사회 그 자체가 생태적으로 개별 인종 집단 하나 하나를 구성단위로 하여 유지되어 가는 것만큼, 한 인종 집단 그 자체는 전체에 대하여 부분이면서 자기 집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나의 오롯한 전체로 생각하게 된다. 전체에 대해서는 부분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체가 되어 있는 상태——따라서 자동적으로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부분중시의 경향이 강해진다. 전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을 떠난 전체는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또한 전체는 부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부분을 위하지 못하는 전체는 의미 없는 전체일뿐 아니라 해체되어야 하는 전체라는 사고가 너무나 자연스레 이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형성되어 나온다. 그리고 이 각 하위부분들(개별인종 집단)의 自律性, 즉 어느 하위부분도 다른 하위부분들을 지배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고와 소수의견도 다수의견과 한가지로 존중되어야

11) 恨이라는 글자 자체도 마음 혹은 情을 나타내는 “忄”(심방변)이라는 글자와, 그치는 것(止), 한정되는 것(限)을 나타내는 艮(간)이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는 사고 역시 이에 연관되어 이 多數人種집단 사회에서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처음부터 오직 한 인종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그 인종집단 자체가 오직 하나의 전체가 되어 있다. 이를 多數人種집단사회와 비교해서 보면, 多數人種집단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었는데 반해서 이 單一人種집단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부분이 없는 전체가 되어 있다. 만일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모래알처럼 분리된 개인들이 부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개인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근대사회의 형성 이후의 일이고, 초기 인류사회 혹은 전통사회에서는 집합체 속의 한 개인이 아닌 개인은 전혀 의미 없는 개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單一人種집단사회는 철저하게 부분이 없는 전체이고 설혹 부분이 있다 해도 그 부분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동시에 有害하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체를 구성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깨버리는 작용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하위부분의 자율성이라든지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는 것은 이 單一人種집단사회에서는 그 성격상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재창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사회가 총력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것을 시도하고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 하면, 다시 강조해 말해, 부분 없는 전체가 生態的으로 혹은 社會生物學的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5) 葛藤 : 남과 다투는 것, 경쟁한다는 것, 알력 반목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남과 싸운다는 것, 이 같은 상태나 행위과정에 대해 어떤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多數人種집단사회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多數人種집단들로 구성되

어 있는 만큼 서로의 다름이 서로 적응되도록까지는 서로 싸우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서로 싸운다는 것, 葛藤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애초부터 익숙해질 수 밖에 없고, 만일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서로 죽이든가 서로 떠나든가 둘중 하나가 되어, 共存이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共存하고 있는 상태는 서로 적응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적응하고 있는 상태는 葛藤을 적절히 처리하면서 적응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 적응은 둘 혹은 여러 인종집단들이 완전히 화해하거나 완전히 同和되어서 적응하는 상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완전 화해라든지 완전 동화의 상태는 사실상 어느 한 쪽 집단의 “다름”이 그 “다름”을 포기하고 다른 인종집단의 그것과 합치되어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多數人種이 單一人種집단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多數人種집단으로 수백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 그것은 葛藤構造 속에 살아 왔다는 것이고, 葛藤構造 속에서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葛藤을 처리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며, 葛藤처리에 익숙해 있다는 것, 그것은 또 서로간의 社會關係 정도 혹은 접촉의 정도가 높아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관계 그러한 접촉이 여러 인종집단간에 “열려 있다”(開放상태)는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처럼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아득한 옛날부터 人種집단간 葛藤(ethnic conflict)을 기초로 葛藤을 처리하는데 익숙해온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처음부터 그 構造를 달리한다. 그들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걸고 싸워야 할 異邦의인 다른 인종집단을 그들 사회내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들간에 화해해서 오손도손하게 합심하면서 사느냐가 된다. 따라서 그들간에 서로 다툰다는 것, 알력하고 마찰 반목 질시한다는 것, 혹은 지나치게 남보다 경쟁력이 세다든지 성취

동기가 높아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혹은 거의 生理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病理視된다. 가장 바람직한 인간은 언제나 남과 싸우지 않는 인간이고, 모난 돌처럼 모가 나서 정을 맞지 않는 인간이고, 남과 달리 보여서 남의 눈총이나 손가락질을 절대로 받지 않는 인간이며, 좌도 우도 기울지 않고 가운데를 지키는 中庸의 인간, 조화를 늘 이루고 있는 인간, 德을 쌓고 있는 인간이다.¹²⁾

따라서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는 싸우는 구조——갈등구조와는 철저히 거리가 먼 구조이고, 따라서 그들 내부에 갈등이 언제든 일어나기만 하면 그 처리에 익숙지 못한 구조이고, 그리고 그 처리의 결과에 만족도가 언제나 낮은——逆으로, 어떻게 처리해도 不滿이 일정 기간까지는 꼭 남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單一人種집단사회에서 사회전체적으로 가장 큰 갈등은 多數人種집단사회에서 보는 人種葛藤과는 달리 地域葛藤(local conflict)이 된다. 철저한 동화와 화해를 위주로 하는 單一人種집단사회에서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은 지리적 이동성이 낮고, 이동성이 낮은 것만큼 특정 공간내에서 동화된 사람들끼리의 統合力이 높고, 그들끼리 統合力이 높은 것만큼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사회관계나 접촉의 정도를 높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리하여 자동적인 지역적 斷絶狀態가 와서——이 오랜 斷絶性 때문에 중앙무대 등에서 만날 때는 또한 자동적으로 갈등상태가 야기되어서——斷絶된 지역끼리의 갈등이 그 시대에 갈등의 가장 中心的인 葛藤(principal conflict)이 된다.¹³⁾

6) 妥協 : 妥協은 갈등의 산물이다. 葛藤構造에 적응해 있는 사회가 妥協을 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의 人種간 共存논리에서도 시사

12) 論語에 小人의 정의를 同而不和, 즉 같으면서 조화롭지 못하다는데 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13) 고려 인종때 경주 중심 세력인 金富軾과 평양중심세력인 妙淸의 싸움을 비롯, 조선조의 鄭汝立亂, 洪景來亂, 東學亂 등이 모두 지역갈등의 의미와 형태를 띤다.

된 바 있다. 반대로 和解構造에 익숙해 있는 시대는 妥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만큼 妥協에 생소하고 妥協의 기술이 미숙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妥協 자체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할 수 있다.

妥協의 生態學은 우선 妥協의 당사자(Party)가 될 수 있는 “部分”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部分들이 스스로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소지한 自律的인 집단이냐 아니냐에 의존한다. 만일 각 部分들이 자율적인 집단이 되어 있을 경우, 그 部分들은 전체에 대해서는 部分이지만 자기집단 스스로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체가 되어, 다른 여러 部分들과의 갈등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협의하는 全體的 당사자가 된다. 그리고 그 각 部分들은 서로에 대해 갈등의 主體的 당사자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갈등상대에 대해 폭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것인지 協商을 통해 할 것인지 혹은 회유를 통해 할 것인지를 계산해 간다.

이렇게 각 部分들이 갈등의 당사자인 동시에 갈등해결의 主役이 되어 갈등을 벌이고 그 갈등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각 部分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대가(cost)를 적게 치르는 해결방식인가를 오랜 세월동안 경험을 쌓아 오는 가운데서 터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터득은 단순한 경험이나 단순한 계산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部分이라는 집단(예컨대 人種집단)이 계속 살아 남느냐 지상에서 종말을 고하느냐의 가장 절박한 生態的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 될 것이다. 多數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妥協文化는 사실은 이러한 가장 적나라한 生態的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해결의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확립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갈등이나 妥協의 主體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部分이라는 것이 없다. 部分은 모두 전체 속에 용해되어 있고, 따라서 전체는 部分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4) 이 文化의 대표적인 것이 give and take, 즉 갈라먹는 것.

그 部分들을 모두 내포하면서 초월해 있는 것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전체 내에서 성원들이 혹은 그 성원들이 만든 집단들이 갈등을 벌이면 그 갈등은 언제나 全體 對 部分(전형적으로는 國家對 個人 혹은 下位集團)의 싸움이 돼서 全體가 部分을 철저히 진압해버리든지 아니면 施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난다.¹⁵⁾ 강조해 말하면, 거기에는 妥協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도 않거니와 着想되지도 않는다. 왜냐 하면 妥協이란 상태가 되는 部分과 部分들간에서 이루어지는 갈등해결방식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全體와 部分이 대등한 입장이 되어 妥協을 벌이면(단일 대등한 입장이 아니면 妥協은 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 全體는 통합력을 잃고 그 권위를 상실해서 와해의 위기를 맞는다.

따라서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妥協이란 오히려 갈등해결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해결방식으로 생각돼서, 單一人種사회의 그 어디에서나 妥協은 野合 아니면 迎合, 附合이라는 부정적 행위로 거부시되는 공통현상을 보인다.

7) 自由: 自由와 平等은 近代理念의 2개의 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세계에 들어 와서이고, 近代社會로 돌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펼쳐져 온 인간관계의 역사에서 인간의 그 어떤 상호관계, 상호작용의 유형이 自由를 보다 고양시키고, 그와 한가지로 또한 그 어떤 상호관계 상호작용의 유형이 平等을 보다 고양시키는 것이 되어 왔겠는가. 보다 적나라하게는, 自由와 平等에 관한 관념이나 요구가 하나의 社會思想으로 포출되어 나오기 훨씬 이전, 이미 그것을 體質化시키고 內面化시킨 社會生物學的 요소는 그 어떤 것이겠는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러 저러한 형태의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생산활동 어떤 유형의 교환활동이 중요 작용을 하듯이,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앞서

15) 이 文化의 대표적인 것은 give or take, 즉 獨占하든지 베풀든지 둘중 하나가 된다.

중요 작용을 하고 큰 영향을 미쳐 온 요소들은 社會生物學的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요소들이 自由와 平等을 설명해주는가.

이 역시 인종집단간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내려 본다면, 그것은 인종간 異質性이나 同質性 혹은 相異性이나 類似性 등의 社會生物學的인 요소들을 가지고 따지고 추적해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이질적인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인종집단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여러가지 資質, 차이나는 여러 수준의 능력에 따라 자기 다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自由, 나아 가선 자기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확대하고 발휘할 수 있는 自由가 처음엔 집단적 측면에서 자기 인종집단의 死活 生存여부와 직결되어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요구는 사회관계구조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개인적 측면으로까지 연장되어 보다 강화되고 보다 가속화돼서, 근대 서구사상사에서 나타나듯 自由가 중심사상으로 平等은 복수적인 것으로 발달해 온 맥락과 연결되고 또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單一人種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同質性이라는 점에서, 즉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自由보다는 生理的으로 平等이 더 많이 요구되고 더 절실히 갈구되었다 할 수 있다.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자질이 있다고 더 앞서거나 능력이 있다고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은 “같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며 그리고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고, 따라서 질서와 안정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 못살아도 다 같이 못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잘 살아도 못사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좋지 않은 사회라는 사고가 同質社會의 일반화된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¹⁶⁾ 심지어는 4寸이라도 논을 사서 나와

16) 管子의 天下不患無財 患無人以分之(재산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나눔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두려워하라)와 論語의 不患寡而患不均(적은

다른 지위가 되면 그 같음의 균형이 깨어지는 충격 때문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이 同質社會의 “같음” 의식이다.

현대의 多元主義는 영향력의 광범위한 분산이라는 점에서 自由 못지 않게 平等 역시 有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多元主義社會도 능력에 의한 자유경쟁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平等은 自由의 附隨的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자유로운 능력의 개발이 없는 하위집단은 多元主義사회에의 중심개념인 하위집단의 自律性이 확립되기 그 훨씬 이전에 하위집단 자체의 형성까지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自由는 더 더욱 平等에 앞서 多元主義발전의 主된 요소가 된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은 바로 이를 나타내는 平等 중심의 오랜 전통이라 할 수 있다.